

광주시, 인공지능·웹툰 융합 특화육성 방안 찾는다

지역 웹툰·콘텐츠 전문가와 대화
웹툰기업 25곳 2년새 18곳 늘어
생산·창작·효율성 등 극대화 기대
“협업공간·단계적 육성책 등 필요”

광주시가 웹툰에 지역 대표산업인 인공
지능을 적용한 특화육성 방안을 모색한
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광주
대표산업 인공지능(AI)과 웹툰이 만나
다!’를 주제로 ‘41번째 월요대화’를 진행
했다.

이번 월요대화는 문화콘텐츠산업 중 성
장성과 확장성이 큰 웹툰에 광주 대표산
업인 인공지능(AI)을 적용한 특화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기반시설에
광주실감콘텐츠큐브, GCC사관학교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인공지
능 기반 문화산업 육성의 최적 도시다.

또 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중 웹툰기업
은 지난 2022년 7곳에서 올해 25곳으로
2년새 357% 급증,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
고 있다.

강 시장이 주재한 이날 월요대화에는
임숙자 한국폴리텍대 AI융합학과 교수,
표준범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
개발실장, 황중환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교수, 이호 ㈜스튜디오질풍 대표이
사, 이재훈 ㈜공감미디어 대표, 김범윤 ㈜
상단스튜디오 부사장, 김성진 호남대 만
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박원희 ㈜이레컴
퍼니 대표, 이재복 웹툰스튜디오 대표, 양
예찬·백민주 GCC사관학교 웹툰 교육생,
안평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경
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
했다.

참석자들은 ‘웹툰과 인공지능산업이 만
났을 때 가장 큰 장점은?’이라는 공통 질
문에 ‘작가의 워라벨’, ‘새로운 기회’, ‘신
박한 미래먹거리 산업’, ‘창의성 극대화,
생산성 효율화, 또 다른 작가의 탄생’, ‘지
역정착, 청년고용률 상승’, ‘융합과 기회,

변화’ 등 다양한 답을 내놨다.

이재복 웹툰스튜디오 대표는 “웹툰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신생 업체는 인력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AI를 활용하면 웹
툰에 다소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AI는 웹툰에 대한 진
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웹툰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
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AI와 웹툰이 결합하면 웹
툰 창작자들의 가장 큰 고충인 노동시간
과 근무강도를 획기적으로 줄여 생산·창
작·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
점으로 꼽았다.

양예찬 GCC사관학교 웹툰 교육생은
“웹툰에 AI기술을 접목하면 작품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며 “AI를 활용해 채색과
후보정 등 과정을 자동화하거나 단순노동
이 들어가는 작업 과정을 개선하면 작가
들은 더 많은 시간을 창의성에 집중할 수
있어 독자들은 품질 좋은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광주시가 AI와 결합한 웹
툰 사업을 빠르게 육성해 광주 미래 먹거
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공감미디어 대표는 “AI와 웹
툰이 만날 수 있는 도시는 GCC사관학교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 등을 갖춘 광주가
유일하다”며 “광주시가 IP산업의 뿌리인
웹툰을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육성한다면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AI와 웹툰산업 육성을 위
해 광주시가 달라져야 할 점에 대해 ‘인공
지능 디지털 문화콘텐츠 R&DB센터 건
립’,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파이프
라인(중심축) 구축’, ‘작가·기업·기관이
모일 수 있는 협업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
다.

이호 ㈜스튜디오질풍대표는 “과거에는
웹툰·게임·애니메이션 기술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사용됐다면 인공지능(AI)과 확
장현실(XR)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콘텐츠의 모든 기술이 집적화됐다”며 “웹
툰·게임·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문화콘텐츠

에 폭넓게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문화콘텐츠
R&DB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범 지스트(GIST) 한국문화기술
연구소 연구개발실장은 “인공지능(AI)
과 융합된 웹툰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잡고 어떻게 발전시
킬 것인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하
나의 파이프라인(중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인공지능·문화도시
를 꿈꾸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웹툰·애니메이션 등 많은 문화산업이
활짝 피는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며 “AI
와 웹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주정보문
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육성방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웹툰산업을 지원하고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을 통해 문화
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GCC사
관학교 운영 등 5개 사업, 62억4000만원
을 지원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오늘 ‘대자보 도시’ 정책포럼 개최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교통공사, 순
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광주에코바이
크,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5일
광주교통공사 5층 대강당에서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를 위한 사
람중심도시 광주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4일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에 따르면
이번 정책포럼은 현재 진행중인 걷고 싶
은 길, 대자보도시 광주 정책 중 도로다이
아트와 이를 통한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는 도로다이아트 사례와
광주제안을 이상훈 서울시의회 의원이,
두 번째는 대자보 도시 광주의 방향과 과
제로 황철호 광주광역시 정책보좌관이,
마지막 발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로 정현미 (재)순과나눔자전거
시민포럼 정책위원장이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김연지 첨단자전거마을 주
민기획단,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

원장, 이종배 광주광역시 도로과 팀장, 김
형민 광주교통공사 경영지원처장, 장준석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도로다이아트와
이를 통한 보행,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논
의한다.

포럼의 사전행사로 진행되는 자전거·보
행 친화도시 1010업무 협약식은 일상 생
활권 내에서 자전거와 보행이 안전한 10
분도시 환경을 조성해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10%까지 높이는파
트너십을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

토론을 공동주관하고 있는 이운기 광주
지속가능발전협 상임회장은 “이번 정책포
럼은 녹색교통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여 2045년 탄소중립에 적극 기여하며,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자보도
시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중요한
자리로 대자보도시 광주만들기의 밑거름
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보건환경연, 수질분야 7년 연속 최우수 국제 인증

미국 환경자원학회서 21개 ‘만족’

전남보건환경연구원(원장 안양준) 동
부지원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의
2024년 국제수련도 평가 수질 분야에서
최우수기관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동부권 국가산단 환경오염사고 대
응체계 확보를 목적으로 2018년 설치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은 전 세계
정부 기관과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이 참
여하는 국제수련도 평가에서 7년 연속 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미국 환경자원학회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환경 분야
수련도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평가 결과
는 항목별로 ‘만족’, ‘주의’, ‘불만족’으로
구분하며, 매년 1200여 세계 각국 분석기

관이 측정·분석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수질 분야 시험은 유기물질, 이온류, 미
생물 등 일반 수질오염물질과 금속류, 휘
발성유기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총 21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 항목 모두 최고 등
급인 ‘만족’ 판정을 받아 전남보건환경연
구원 동부지원이 국제 공인시험 기관으로
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박찬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
수과장은 “국제수련도 평가를 통해 측정
자료의 신뢰도와 정확도에 대해 국제적으
로 입증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측정 분석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소고기 떡갈비 만들기 체험

광주대 베트남 유학생들이 24일 광주대 호텔조리제과제빵학과 실습실에서 학과생들과 함
께 호남 지역의 대표 전통 음식인 떡갈비를 만들며 한국의 식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40억 긴급 투입

시 보유 재난관리기금 활용 비상진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

광주시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비상진료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관리기금 40
억원도 긴급 투입해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과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강기정 시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
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비상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40
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투입 예산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인력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련병원 4곳에 대한 비상진료인력의 채용
인건비, 당직·연장 근무수당 등에 38억

5800만원을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
독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등이다.

여기에 전남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
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1차 응급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3700만원도 투입한다.

광주시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의료기관
의 비상진료체계 여부와 필수의료 운영
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상황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때 원활한 환자 이
송과 전원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등 의
료기관 이용 불편과 진료공백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3일 광주지

역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하는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했
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연말까지 지역 21
개 응급의료기관이 하나의 병원처럼 가용
자원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소방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광주
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을 구축할 계
획이다.

강 시장은 “의료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서도 중증·응급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의료현장에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
다.

노병하 기자

광주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 안전시설 보강

광주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이용 승객들
의 안전을 위해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
전 장치 대폭 교체 및 보강에 나선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10월 8일부터 12
월말까지 13개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총 65대의 안전 부품을 대거 교체하고,
‘핸드레일시스템’ 등 신규 안전장치를 설
치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한층 보강
할 계획이다.

이번 개강 공사로 인해 역사 내 에스컬

레이터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예정
이다. 기기별 이용 제한은 역별 공사 일정
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호별로
약 1~4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 중단 기간은 역사 내 안내문, 공사 홈
페이지(www.grtc.co.kr)와 SNS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